

행위목표로서의 가치와 착장행동 - 행위이론의 응용 -

이 난 희
건국대학교 강사

The value and the clothing behavior as the goal of action -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action -

Nan-Hee Rhee
Lecturer in Department of Clothing Design, Konkuk University
(2003. 10. 27. 접수)

Abstract

So many patterns of the clothing give the specific indication for one's clothing behavior and present the common style for the society.

Human being gives the one's free expression and attempts to change the existing cultural environment by the clothing even though human being would be restricted in choosing the clothing within the category of the society & the culture.

The value of human being which attempts to escape the restriction through the behavior theory of T. Parsons is analysed and studied.

The role of the modern society is being transformed and human being attempts to express one's self through the clothing very strongly.

The clothing behavior means the expression of oneself for others.

This phenomenon comes from the changing of human being's view of value through the social & cultural environment which give human being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to choose the various clothing.

Key Words: artemisia(쑥), color fastness(염색견뢰도), dyeability(염색성), repeats of dyeing(반복염색)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복장은 인간이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 의해 나

타나는 외관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간의 행위와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인간 생활의 기본은 사회생활에 있고, 복장에

이와 같이 복장은 사회변동과 문화변용과의 관련으로 생겨난 것이고, 사회 전체 속의 인간의 가치관과 심리경향이 변하면 그것은 복장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복장은 한 개인으로부터 성립되는 것이지만 사회적 행위를 통하여 그 사회의 경제, 정치, 협의의 사회, 문화와 관계를 맺게 되며 그 과정에서 복장은 문화의 한 요소로서 그 시대, 사회 속의 사람들의 가치, 관습, 감각, 정서 등을 반영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 과정을 설정해 보았다. 즉, 인간의 지향이란 것은 행위자와 상황과의 관계로부터 성립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 속에 제도화되어 Personality에 내면화되어진 가치 규범에 의해 규제되어짐과 동시에 행위자는 일정의 규범과 관련되어진 가치 지향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가치 지향은 인간이 의복을 어떻게 입을까 하는 착장행동의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복장에 관한 태도와 가치는 그 시대의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며, 그 사회와 문화가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문화와 복장과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복장이 어떻게 표현하고 또는 어떻게 반영하여 나타내는가의 문제에 귀결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인간의 행위를 거시적인 전체로서의 사회, 문화 현상을 하나의 통일적인 시야로서 본 미국의 사회학자 Talcotte Parsons의 이론을 적용하여 인간-사회, 문화-복장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아울러 현대사회의 가치가 착장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 검토 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으로서, 복장과 문화와의 관계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 가치(가치관)를 복장이 어떻게 표현하고 또는 어떻게 반영하여 나타내는가의 문제에 귀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간과 사회를 연결하는 개념용구로서 인간의 가치를 매체로 해서 행위이론을 탐색한 T. Parsons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1. 행위이론(A General Theory of Action)

T. Parsons의 이론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행위이론으로 탐색되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사회 현상을 논할 때는 우선 그것과 관련된 무수한 사람들의 행위의 동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위자는 기본적으로는 일개의 생물(행동유기체)로서 존재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요소 즉, 언어, 가치관, 행동양식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면화해서 완성된 인격 시스템이다".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의지로부터 동기가 있어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사회현상은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 넘지만 그것들 역시 개개인의 의지와 동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질도 개인의 행위의 결과로서 생겨난 구조이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를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양자의 사이를 연결하는 개념 용구로서 인간의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는 행위자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어떤 사회 구조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원의 가치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진다. 사회성원이 갖고 있는 가치의식은 사회공동체의 형성, 해체 또는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조

1) 中野秀一郎 (1999), Talcotte.Parsons. 東新堂, p.33.

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사회의 존속과 통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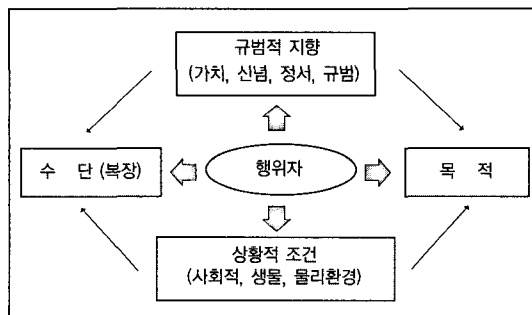
T. Parsons는 가치를 하나의 사회성원들에게 공유되어진 가치체계로서 생각하고 이것을 행위 이론으로서 체계화했다. T. Parsons에 의하면 가치라는 것은 사회체계에 있어서 사회의 역할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신념으로서 표현되고, 그것은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행위자는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회 속의 규범과 가치에 의해서 행동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T. Parsons의 이론은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³⁾.

개개인의 행위가 공유되어져있는 가치 규범에 의해서 형성되는 규범적 지향을 가짐으로서 사람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즉,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거시적인 전체로서의 사회, 문화현상을 하나의 통일적인 시점의 근거에서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과 사회, 문화를 연결하는 총체적 관계를 인간의 가치를 매체로 해서 분석하는 게 가능해진다.

행위에 있어서 질서의 측면, 다시 말해 행위의 규칙성이란 안정성을 전제로 하면 공통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T. Parsons는 행위체계와 개인과 개인을 통합하고 있는 규범적 문화적 기준과 행위자의 동기부여를 통합하

〈표1〉 단위행위. 中野秀一郎, 「T. Parsons」, p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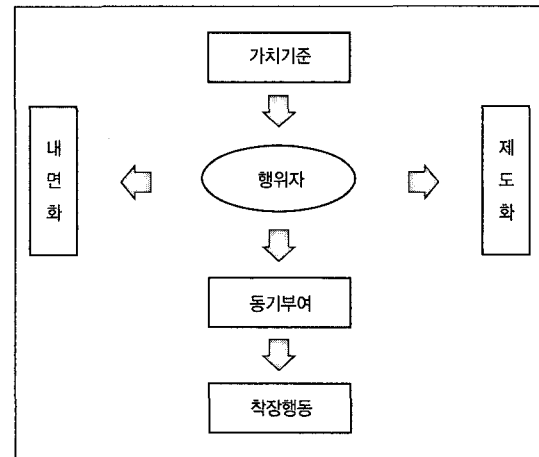


는 매카니즘으로서의 가치기준을 확립했다.

이 가치기준은 행위자의 Personality에 내면화되는 것과 동시에 사회 문화적인 규범구조에 제도화된다. 가치기준의 내면화와 제도화에 의해서 사회, 문화가 유지되고 더욱이 복장에 있어서는 옷을 어떻게 착용할까 하는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

개인이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동기지향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그것은 사회, 문화에 제도화되어 Personality에 내면화된 가치기준에 제어(통제)된다. 이렇게 해서 행위자는 일정한 사회규범과 관련되어진 가치지향을 갖게 됨으로서 옷을 입을 때에는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 문화에 의해 통제되어진다. 따라서 복장에 대한 지향은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상황의 변화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항상 생성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 의해서 복장을 사회적 행위라고 간주 할 수 있다.

〈표2〉 사회적 행위로서의 복장



2. 행위체계(A. G. I. L패러다임)와 복장

복장을 사회적 행위로 간주하면 복장을 행위의 준거축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복장에 영향을 미

2) Kinsley Davis (1949). Human Society. Macmillan.co. New York, p.114.
 3) Parsons, T. (1953). Working papers in the Theory of Action. With Bales The Free Press. New York, pp.90-100.

치는 기능을 T.Parsons의 행위이론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행위체계는 다음과 같다⁴⁾.

- 1) 적응(Adaption)으로서 A-현실에서 행동하는 행동 유기체(생물로서의 인간)
- 2) 목표달성(Goal Attainment), G-Personality체계로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인격을 가진 행위자
- 3) 통합(Integration)으로서 I-사회통합을 가진 사회체계
- 4) 형의 유지(Latency of pattern Maintenance)로서 L-다양한 규범에 일관성을 부여 하는 가치체계로서의 문화체계 등이 있는데 이것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인간의 행위의 설명도식은 명확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T. Parsons는 주장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복장을 사회적 행위로 간주하면, 복장을 행위의 준거축으로 가정할 수 있고, 복장을 변화시키는 기능에는 행동유기체인 인간, A-Personality체계, G-사회체계, I-문화체계, L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의복을 신체에 감싼다는 행위는 사회화를 통해 인격을 가진 행위자가 사회, 문화의 규범 가치에 의해 통제되어지는 과정에서 성립하는 사회적 행위이고 또, 복장을 통제하는 사회, 문화는 사람들의 가치에 의해 형성되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행

위의 일반체계의 프로세스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간의 행위를 구성하는 단위행위로서 “행위자”, “행위상황(상황적조건)”, “지향(규범적 가치)”이 있는데 복장을 사회적 행위로 간주하면 현대인의 가치변동의 배경을 상황적 측면(사회적 환경), 행위자 측면, 행위자의 지향(가치)”의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Ⅲ. 가치변동의 배경

1. 상황적 측면(사회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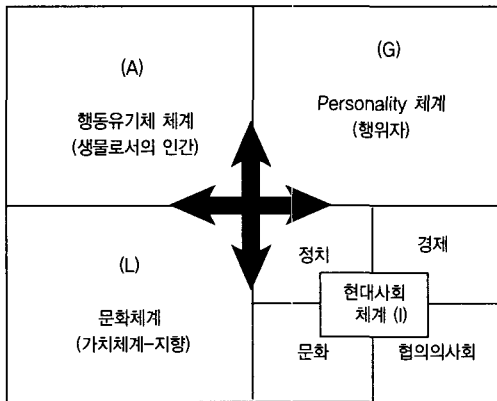
사회시스템으로서 현대사회의 변화 구조를 정치, 경제, 협의의 사회, 문화의 범주에서 검토해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인 면-민주화에 의해 사회 시스템의 구성원들이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권력을 지키는 일이 정부의 의무임과 동시에 정치에 대한 시민의 참가가 확대되었다. 사회구조의 면에서 말하면 행정, 기업을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 관료제화가 진전됐다.

2) 경제적인 면-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비교적 저가 상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더불어 대량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한 산업형태가 생성시킨 것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기술적인 합리성과 관료제화의 진전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은 사회의 현대화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고도산업화를 맞이 하게 되었다.

3) 협의의 사회-고도 산업화의 진전은 기초적 사회를 목적별로 해체시키는 것에 의해 그 구성원을 기초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적 구속, 즉 혈연적으로 맺어진 혈연적 공동체와 촌락 공동체 등의 해체를 기능적으로 필요로 했다⁵⁾.

<표3> 복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요건



4) op. ct., pp.183-190.

5) 富永健一 (1995). 日本의 近代化와 社會變動. 講談社學術文庫, p.43.

그리고 기능사회에 있어서 기능적 목적을 평등한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달성하게 했다⁶⁾.

이 과정으로부터 인구의 도시집중,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도시화를 촉진시켰다.

4) 문화적인 면-과학기술의 발달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보급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의 사상도 합리화 되었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상은 과학기술을 발달시켰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을 가져왔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한 정보 전달의 확대는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고도화시켰고, 현대사회의 정보화를 낳는 계기가 되었다고 추측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은 “정보화”라는 가치에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2 행위자적 측면

1) 관료제화와 계급의식의 희박화

현대사회의 구조가 분화, 제도화되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도 개성과 존재 그 자체를 강하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욕구가 다양화, 세분화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인의 가치관의 다원화를 낳게 한 배경은 민주주의를 기본 구성원리로 하는 정치적인 근대화에 의해 개인의 정치에 대한 평등과 공민권의 확대에 의해 관료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계급의식이 희박해졌다. 관료제화에 의해 종래의 신분의 상하관계에 의해 명확하게 구별되었던 수직 관계를 대신해서 능력과 자질의 균일화에 의해 맺어진 수평관계가 현대에서는 중요시 되어졌다. 이로 인해 반대로 현대인은 인간의 개성을 억누르는 관료제화에 대한 반발감, 사회구조의 분화에 의한 욕구의 다양화, 세분화에 의해 가치가 다원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2) 고도 산업화와 중류의식의 확대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관료제화의 진전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는 고도산업화가 진전된다. 고도산업화는 현대인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상품은 대량 생산-대량소비체제를 갖추고, 노동의 내용도 형태를 갖추어 전통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감소한 반면 사무, 관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층의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⁷⁾.

그들에 의해 새로운 중간층이 출현하고 신 중간층의 출현에 의해 개인의 자립성 내지 자주성의 진전과 가치의 다원화의 심화는 여러 사회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중류의식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리고 의복을 시작으로 소비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과거의 노동자들이 인생의 즐거움은 식생활이라고 생각한 반면, 신 중간층은 소비와 패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3) 도시화와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대

도시적 생활양식이라는 것은 도시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생활양식을 뜻하는 것이지만, 현대사회에 있어서 생활양식의 주요한 변화는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대이다⁸⁾.

이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대에 대해 Erickson⁹⁾은 대중적 사회인 도시생활이 낳은 요구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도시적 생활양식을 넓은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이 도시 그 자체를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도시는 전체사회의 구조적 요소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전체 사회속의 지식, 정보의 생산관리, 정책 결정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도시의 생성과 함께 촉진되어진 도

6) 富永健一 (1995). 日本의 近代化와 社會變動. 講談社學術文庫, p.43.

7) 安藤喜久雄編 (1984). 「현대사회의변동론」. 新評論社, p.177.

8) 汁村 明 (1972). 「사회학 강좌 13」. 東京大出版會, p.57.

9) Erickson Erickson, E.G (1954). Urban Behavior. Macmillan, co, New York.

시화는 현대사회를 사회조직의 수, 규모의 증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의 강화, 계층이동, 관료제화의 진전으로 인해 도시적인 생활양식을 확대시켰다.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대는 생활의 합리화와 다양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가정과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확대시켰다¹⁰⁾.

개인주의 가치관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다양성을 부여했고 의복의 착장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4) 정보화와 대중문화의 변화

인쇄기술의 발달로 신문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된 것과 함께, 19세기 전파기술의 발달이 진보하여 오늘날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매체가 되었다. 그리고 컴퓨터의 출현에 의해 현대사회는 더욱 더 정보화의 물결을 탔다.

현대사회의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대중문화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를 촉진시키는 매체로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의 기술혁신이 생각되어진다.

여기에서, 대중문화라는 개념의 다의성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의 정의가 어려운 것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대중문화의 실태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중문화(Mass Culture)라는 표현은 세계사 속에서 지금까지 문화의 향유 계층이던 귀족과 부르주아 등의 세련된 감성을 대신해서 20세기 이후 노동자, 농민, 도시 생활자 등 보통의 일반대중이 친밀감 있게 접할 수 있는 문화양식이라고 정의되어진다¹¹⁾.

오늘날 대중문화의 변화는 고급문화 또는 아방가르드라고 인식되는 것이라도 대중문화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은 없어진다고 할 정도이다.

또, 각 문화 간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대중문화 그 자체가 다양화 되었다는 것, 대중문화가 국제적인 범위로 확대되어

진 점과 각 미디어 간의 결합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¹²⁾.

이와 같이 대중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되어진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평등과 자유의 가치와 경제력의 상승, 자기주장의 강화, 사회구조의 분화에 의한 가치관의 다원화가 현대인의 가치의식을 지배하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대중문화가 획일화되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 획일화를 넘어서는 개성이 현대인에게는 잠재해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대중문화를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즐기면서 문화를 창조하는 대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대중문화의 영향이 특정의 소수자로부터 문화를 공유하는 일반인들이 문화적으로 고도화되고 생활의 일반화와 다양화를 촉진시키는 매체가 될 뿐 아니라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고, 생활양식의 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일례로 어패럴 메이커가 만든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이 매스 미디어를 매체로 해서 소비되어진다는 것은 의복이 대중문화와 연관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3 행위자의 지향(가치)과 복잡

현대사회의 구조가 분화, 제도화되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도 개성과 존재 그 자체를 강하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욕구가 다양화, 세분화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인의 가치관의 다원화를 낳게 한 배경은 민주주의를 기본 구성원리로 하는

10) Moran, E. 著 濱明優美 外譯 (1990). 「사건과 위협의 사회학」, 法政大學出版局, pp.45-46.

11) 市川昌 외 (1991). 「매스 커뮤니케이션」, 日本放送教育協會, p.222.

12) 井上宏 (1987). 「TV 문화의 사회학」, 世界思想社, p.27.

정치적인 근대화에 의해 개인의 정치에 대한 평등과 공민권의 확대에 의해 관료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계급의식이 희박해지고,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관료제화의 진전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는 고도산업화가 진전된다. 이것들에 의해 새로운 중간층이 출현하고 현대인의 의식 속에는 중류의식이 확대되어지고 있다.

또 고도산업화에 의해 도시화가 진전되고, 생활양식이 도시적인 생활양식으로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개인주의, 실용주의가 확대되어진다. 또,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보화를 낳고 현대사회의 대중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쳐 대중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에 의해 현대인의 가치관은 다원화되고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의해 여러 가지의 복장에 흥미를 갖게 됨으로서 복장에 대해 지향하는 바가 변화하게 되었다.

그것은 신분의 상하관계가 없어지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한층 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다원화는 사회계급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개성이 있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복장을 활용하게 했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한층 다양한 자유를 주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사회적 승인이 향상되었다는 점과 복장에 대한 사회, 문화적 규범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¹³⁾.

이렇게 해서, 현대사회의 복장은 자신의 욕구와 취미 생활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자신의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아울러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화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복장이 다양화, 유행화되어진 배경은 사회변동에 의한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IV. 가치변동과 착장행동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원화되고, 가치관의 다원화와 함께 복장도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응하여 “합리성”으로부터 분화된 현대복장이 “다양화”, “개성화”, “사회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 T. Parsons의 행위이론을 응용하여 현대사회의 구조변동에 의한 가치관을 고찰하고 이것들과 복장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이것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복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 검토해 보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복장에 대한 지위의 symbol 성의 약체화(弱體化)

중세 봉건시대에 있어서 귀족과 농민 복장의 차이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사회적 계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현대 사회의 복장이 지위, 부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 생활양식, 행위의 표시의 역할을 하고 복장을 통해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구조, 생활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민주주의의 발달은 개인의 정치에 대한 평등과 공민권의 확대와 더불어 평등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건의 개혁을 요구해서 조직 수의 증가, 규모의 확대에 의해 관료제화가 진전되었다. 관료제화의 진전은 기업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했고, 경제를 성장시켜 고도 산업화를 맞이하게 했다.

이런 요인에 의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했고, 동시에 인구의 도시집중을 가져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적 생활양식을 확대시켰다. 도시적 생활양식은 생활의 편리화와 여가 시간의 증가를 가져왔고, 교육보급의 확대는 계층 이동을 촉진시켜 계층간의 격차가 서서히 희박화되는

13) 神山進 (1995). 「의복과 장신의 심리학」. 關西衣生活研究會, p.31.

현상을 보였다. 또,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계층이 비교적 싼 가격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의복의 구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의복은 지위의 상징으로서의 기능 이상으로 사회적 지위라든가 부의 척도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단지, 현대복장은 특정 행동양식, 특정의 취미, 기호의 선택, 가치관과 자기표현 또는 행위와 생활의 상징이 되었다¹⁴⁾.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 의복의 착용은 소비력의 과시 이상으로 미적인 세련됨의 표시이고, 고가의 복장은 상류계층의 상징물이라기보다는 특정의 복장을 한 집단에 공통적인 미적 가치관의 표시라든지 뛰어난 감각의 소유자라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¹⁵⁾.

게다가 스포츠 웨어, 진, 플로서츠 등의 복장은 육체노동자의 의복이 아니라 자신의 TPO에 맞춰 착용할 의복이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복장이 유행화, 다양화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을 荻村昭典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복장이 종래의 제도와 신분의 표현이라는 역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¹⁶⁾

이것은 전술한 것과 같이 사회구조의 변동에 의한 계급의식의 희박화와 중류의식의 확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2. 복장에 대한 가치의 다원화

복장에 있어서 개성화, 즉 개성적인 복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복장 규범에 맹목적인 자세도 아니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복장규범으로부터 독립한 곳에 위치되어 지는 것이다¹⁷⁾.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 복장 규범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의복을 착장해 보고 그 착장의 의미가 일관되어 있

는 것, 또, 자신의 복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기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통일성을 가지면서 독자성의 표시가 인정되어지는 일이 개성적인 복장의 성립조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은 복장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영역에서 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현대인의 욕구의 세분화에 의한 것이며, 인간의 욕구는 문화의 발달속도가 느린 단계에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 세분화되고 복잡성을 나타낸다.

이 배경에는 현대사회의 경제성장에 의한 사람들의 경제수준의 향상,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한 생활양식의 변화, 그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대중문화의 고도화, 다양화 등의 사회상황의 변화에 사람들은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적응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인간의 욕구는 비대화되었다. 또 비대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체계는 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 여기에서 사회구조의 질적인 변동은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조가 분화되어서 더욱 복잡해진 사회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의 욕구도 다양화 및 세분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와 같이 규모가 거대화 되면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되고 그 매체가 되는 것은 복장이다. 여기에서 복장은 현대인의 다양한 가치관에 부합해서 자유롭게 자기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해서, 현대인의 착장행동은 자신의 욕구와 취미 생활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자신의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아울러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복을 착용한다¹⁸⁾.

이것은 20세기 초 이후 사회의 변화 움직임의 하나인 모더니즘(Modernism)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전계서, pp.77-78.

15) 전계서, pp.77-78.

16) 荻村昭典(1991), 「복장학의 길잡이」, 文化出版局, p.30.

17) 神山進(1995), 전계서, p.219.

18) 神山進(1995), 전계서, p.31.

3. 복장에 대한 가치가 도구적 기능보다 표출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

기술적, 경제적 조건의 혁신은 새로운 기능과 아름다움이 창조되어 복장은 변화한다.

고도 산업화는 현대인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해 종래보다 고급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생활의 다양화에 의해 여러 가지 의복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또, 경제성장은 대량 생산-대량 판매의 체제를 구축했고 매스커뮤니케이션을 개발시켜 의복의 소비를 촉진시켰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 대량 소비의 면은 고도산업화에 의해 노동의 내용도 형태를 변화시켜 화이트칼라층의 인구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화이트칼라층을 중심으로 신 중간층이 출현했고, 신 중간층은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지만 기존에는 일부 계층의 부산물이던 문화와 여가를 향유하는 계층이다. 이 중간층에 의해 개인의 자립성 내지 자주성의 진전과 가치관의 다원화가 심화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생활양식을 다양화시켜 의복을 시작으로 소비구조를 변화시켰다.

둘째, 대량생산의 면에서는 생산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의복 소재를 개발해서 의복을 생활 필수품적인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자기 개성의 표출로서의 대상으로 소비하게 했다. 그리고, 대량 생산된 의복은 중간층의 출현에 의해 대량 판매되어 그 수익은 제품 의 원가를 낮추어 더욱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했다. 결국, 이것은 개개인의 요구와 개성화에 부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했고 비교적 저가의 다양한 형태의 의복의 생산과 더불어 소비자의 경제력 향상으로 개성적인 의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사회가 공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의복산업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었다. 의복산업은 사회가 어떠한 상품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지성, 감성, 정

보력을 총동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켰다¹⁹⁾.

그러한 경우, 새로운 색, 소재, 색감, 디자인 등을 새로운 패션 컨셉과 가치관에 바탕을 두어 만든 제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정보이다. 그것은 패션을 창조하는 기업 내지 기업집단, 또는 디자이너의 목표이념이 기술과 소재를 매체로 해서 투영, 외재화된 것이다. 그 과정은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매스미디어를 매체로 하는 대중문화도 고도화되고 영상기술은 고도의 연출력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의복이 만들어지면 디자이너로부터 상품을 통해 발신되어 소비자에게 수신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현대인은 복장에 대한 가치를 물건 이상으로 즉, 복장이 전달하는 정보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²⁰⁾.

이것을 복장의 기능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복장에 대한 가치를 도구적 기능보다 표출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이는 복장이 갖는 문화적인 요소인 물질적 산물, 사회적 산물, 정신적 산물로서의 역할을 한층 현저하게 하고, 자유롭게 개성있는 자기표현을 위해 의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V. 결과 및 고찰

인간은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연환경에의 적응과정을 통해 생명유지와 신체 보호를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의복으로 자기 개성을 표현하고 또는 타인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유지,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사회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다. 후자에 있어서의 착장행동은 인간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복장에 대한 많은 규범은 인간의 착장행동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스타일을 부가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19) 文化服裝學院 (1993). 「패션비즈니스」. 文化出版局, p.60.

20) 神山進 (1995). 전계서, p.24.

정확히, 인간은 한편으로는 사회, 문화라는 범주 안에서 복장에 대해 여러 가지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복장을 통해서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기존 문화의 변혁도 시도하기도 한다. 복장을 통해 속박당하고 복장으로부터 속박을 탈피하고자 노력을 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에 동기 부여를 하는 인간의 가치를 T. Parsons의 행위이론을 응용해서 착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토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복장의 역할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그것은 의복을 착용할 때 자아를 관여시키는 정도가 더욱 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어떤 옷을 선택해서 입을까라는 착장행동이 어떠한 자신이고 또는 자신을 타인에게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강조이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생명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던 상황으로부터 허방되어 윤택한 현대의 문명과 자유롭게 의복을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경제 발전이 있었고, 더불어, 복장에 대한 자유로운 취향을 승인해주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시대적 조류의 변화에 의한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 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인간이란 물질적인 풍요와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외적인 것, 취미 생활 등에서 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것에 따라 심리적, 정신적인 것에 알맞은 합리성, 과학에서 구하지 못했던 인간다움을 중시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의복을 자기 만족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참고문헌

- 이난희 (2001). 「현대사회의 복장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여자대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난희 (2003). 「현대사회와 복장」. 일본패션비즈니스학회 논문집.
- Creekmore, A. M.(1971), 「Method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State University .
- Erickson E.G (1954). 「Urban Behavior」. Macmillan, co. New York .
- Kinsley Davis (1949). 「Human Society」. Macmillan, co. New York .
- Moran, E. (1990). 「사건과 위험의 사회학」. 法政大學出版局.
- Parsons, T. (1953). 「Working papers in the Theory of Action」. With Bales The Free Press. New York.
- 中野秀一郎 (1999). 「Talcotte,Parsons」. 東新堂.
- 富永健一 (1995). 「日本の近代화와 社會變動」. 講談社學術文庫.
- 安藤喜久雄 (1984). 「현대사회의 변동론」. 新評論社.
- 汁村 明 (1972). 「사회학 강좌 13」. 東京大出版會.
- 市川 昌의 編 (1991). 「매스 커뮤니케이션」. 日本放送教育協會.
- 井上宏 (1987). 「TV 문화의 사회학」. 世界思想社.
- 神山 進 (1995). 「의복과 장신의 심리학」. 關西衣生活研究會.
- 荻村昭典 (1991). 「복장학의 길잡이」. 文化出版局.
- 神山 進 (1995). 「의복과 장신의 심리학」. 關西衣生活研究會.
- 文化服裝學院 (1993). 「패션비즈니스」. 文化出版局.